

SBS뉴스 네트워크 현장[광주]
2012년 6월 18일 방송분

추락하는 오리 값... 축산농민 시름



오리 값이 폭락하면서 국내에서 오리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농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는 정부의 지원이라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답답해하고 있

습니다.

강동호 기자입니다.

나주에서 15년째 오리를 사육하는 김동호 씨는 올해가 오리 사육이 가장 힘듭니다.



김 씨는 오리 한 마리를 키워 파는 비용이 6000원 이지만, 4000원에 팔고 있어 벌써 10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때에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은 보상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더욱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동호/
나주 오리 사육농가]

지금 이 최악의 상태예요. 생산비도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데...

오리 값이 떨어진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 뒤 지난해 상반기 가격이 오르는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를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마광하/광주전남도지회장]

농가들이 받을 부분들은 위탁 사육 수수료가 길게는 반년 이상도 못 받은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국내 오리 두수의 45%인 59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사육되는 오리는 1300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0만 마리 보다 50% 이상 많습니다.

여름철에도 오리 소비가 늘지 않을 경우 전남지역 1000여 개 오리 사육농가들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도 폭락해 1kg당 오리로스 가격은 1만 2000원으로 1년 전 가격이 좋았던 때의 1만 6800원보다 30% 가량 떨어졌습니다.

